

적절한 金…치열한 土…다양한 日

금요일 - 혼전·비혼전 적절히 배분
토요일 - 결승행 걸려 신경전 치열
일요일 - 다양한 편성 다양한 양상

창원과 부산에서 실시하던 교차경주를 일시 중단하고 광명 스피돔 경주가 확대된지 한 달이 지났다. 현재 광명 자체 경주로만 17개 경주가 진행되고 있다. 선발·우수급 경주가 각각 5~6개 경주에서 7개 경주로 늘어났고, 특선급은 3~4개 경주로 줄었다. 이 기간 벨로드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요일별로 그 특징과 주의할 점을 살펴본다.

●금요일-혼전이 줄었다

하반기 대진 방식이 트라이얼(1, 2일차 예선 성적 합산 상위 7명 결승전 진출)에서 1일차 독립 대진, 2일차 예선, 3일차 결승으로 바뀌자 1일차인 금요일에는 갑자기 약자끼리 만나는 혼전 경주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선발·우수급 경주가 확대되면서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들이 최근 적절히 포함되는 모양새다. 선발·우수급 14개 경주 모두 혼전으로 이뤄진다면 팬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혼전과 비혼전을 적절히 섞자, 하반기 이슈였던 ‘금요일=고배당’이라는 관행서 차츰 벗어나며 저배당, 중배당, 고배당이 고루 형성되고 있다.



광명 자체 경주로만 17개 경주가 진행되며 편성에 변화가 있다. 2일차 예선 토요일 경주의 승부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토요일-강자들의 눈치작전 치열

토요일은 강자들이 고루 포진해 기량 차이가 나타나는 경주가 대부분이다. 다만 일요일 경주 결승을 위한 진출권이 걸려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은 금요일과 차이가 크다. 선발·우수급은 과거에는 웬만한 고득점자면 2위만 해도 결승에 진출했지만 현재는 무조건 1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력 우승 후보들의 신경전이 대단하다. 약간의 실수도 허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2위 입상 위주의 안정적 작전보다 철저하게 1위를 노리며 승부 거리를 좁혀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과거에는 버티지 못했던 약한 선수들이 어부지리로 입상하는 경우도 늘었다. 출들

이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연·학연 등을 챙기는 연대 결속력도 떨어진다라는 평가다. 연대를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특선급은 3개 경주 밖에 안돼 강자들은 2위로 밀리더라도 안전한 작전을 선호하는 경우가 늘었다. 쌍승, 삼쌍승에서 고려할 포인트다. 일요일 대진표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측근을 노골적으로 챙기는 현상도 나타났다. 선발·우수급과는 대조적인 양태이므로 연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요일-다양한 편성에서 다양한 결과

선발·우수급이 확대되면서 편성에서

는 좀 더 본인 의도와 맞는 경주를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혼전과 비혼전 경주가 적절히 균형을 이룬다. 특선급은 기존과 큰 차이는 없는 편이나 결승을 제외하면 혼전과 우열 등 경주 양상이 다양하다.

박창현 예상지 ‘최강경률’ 발행인은 “금요일과 일요일은 편성이 비슷해지면서 결과 역시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토요일은 승부가 가장 치열해 배당 역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배당 경주의 경우 측 앞에 있는 자력 승부형의 입상률이 높아졌다”며 벨로드롬의 변화를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 평가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9일 게임·스마트폰 과몰입 청소년 심리치료지원 사업인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사진)에 대한 평가회를

시행했다. 8월부터 10차례 진행했던 사업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치료 대상자의 특성과 사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게임·스마트폰 과몰입 청소년 심리치료지원 사업은 광명시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중 컴퓨터, 모바일, 게임 등에 중독돼 어려움을 겪는 80명을 선정해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은 자전거교실에서 집단교육과 라이딩 등을 통한 활동 치료 프로그램이다.

그랑프리 대상경정 출전 최종 24인 윤곽

심상철·조성인·주은석 등 자격 박탈
이동준·한성근 마지막 한 자리 경쟁

경정 42회차(11월 6~7일) 제5차 그랑프리 포인트(GPP) 정탈전을 끝으로 연말에 진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대상경정 예선 출전권을 얻은 24명의 윤곽이 드러났다.

GPP는 수요일 예선전 및 목요일 특선 경주의 1위 선수가 30점을 획득하고 나머

지 선수들은 착순에 따라 5점씩 차등으로 점수를 받는다. 목요일 결승에서는 우승자가 80점을 가져가고 2위부터 6위까지 10점씩 차등 부여한다. 해당 경주는 GPP 정탈전(3, 5, 6, 7, 11월)과 각종 대상경주, 그리고 특별 대상경주인 쿠리하리배다.

이번 대상경정 예선 최종 24명의 엔트리에는 이변이 많았다. 그랑프리 포인트로 따지면 1위 심상철, 2위 유석현, 3위 조성인·이태희, 5위 김승연, 6위 서휘, 7위 김종민, 8위 주은석·여선규, 10위 이주영,

11위 한진, 12위 기광서, 13위 안지민, 14위 박설희, 15위 김승택, 16위 문주영·이경섭, 18위 김현철·정용진, 20위 김완석, 21위 이진우, 22위 박종덕, 23위 민영건·최영재 등이 예선 진출 순위에 들었다.

하지만 이종 심상철, 조성인, 주은석, 정용진, 김승선이 출발위반으로 자격이 박탈됐다. 덕분에 후순위였던 김민천, 최광성, 박원규, 이용세가 출전한다. 남은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김효년, 박석문, 김민준, 이동준, 한성근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랑프리가 열리는 직전 화차까지 평균 득점에 따라 출전 여부가 판가름난다. 시즌 마감 두 달여 정도를 남겨둔 현

재 평균 득점에서 앞선 이동준과 한성근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모터와 코스, 편성 배정에 따라 언제든지 상황이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연말까지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병준 ‘쾌속정’ 예상분석 전문가는 “우승 상급만 3000만 원에 총상금 9000만 원이 걸린 대회이니만큼 예선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남은 기간 그랑프리 우승에 모든 초점을 맞춰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심상철·박설희 선수의 부부대항전은 무산됐지만 이태희-이주영 부부 선수의 결승전 진출 여부와 함께 시상대에 오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라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전자카드 이용자 보호 캠페인 진행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15일부터 21일까지 광명 스피돔, 미사 경정장, 17개 장외지점에서 ‘전자카드 이용자 보호 기능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륜경정 고객 중 전자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스스로 배팅 상황, 게임 몰입도 등을 확인해 자가진단하고 게임당 한도를 설정해 건전하게 경륜경정을 즐기도록 마련됐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캠페인을 시작하는 15일부터 전자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분기별 1회 이용자 보호 기능 안내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캠페인 참여 고객에게는 3단 우산을 사은품으로 선착순 증정한다. 정용운 기자



배구팬 67% “OK저축, 삼성화재 잡는다”

배구토트 스페셜 52회차 중간 집계
OK저축 최종 3-0 승리 예상 1순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트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는 13일(수) 열리는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녀부 경기를 대상으로 한 배구토트 스페셜 52회차 투표를 중간 집계 결과, 남자부 OK저축은행-삼성화재(1경기)전에서 국내 배구팬의 66.81%가 홈팀 OK저축은행의 우세를 전망했다고 밝혔다.

원정팀 삼성화재의 승리 예상은 33.19%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최종 세트스코어에서는 3-0 OK저축은행 승리 예상(26.02%)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1세트 점수차 예상에서는 4점차(24.69%)가 1순위로 나타났다.

OK저축은행은 현재 승점 15점(5승2패)을 기록하며 리그 2위에 올라있고, 삼성화재는 승점 13점(4승4패)으로 그 뒤를 쫓고 있다. 현재 순위는 큰 차이가 없지만, 아직 OK저축은행이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

기 때문에 승점 차이가 앞으로 더 벌어질 수도 있는 양 팀이다.

리그 순위와 더불어 OK저축은행은 상대전적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시즌 첫 맞대결이었던 10월 16일 경기에서 OK저축은행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3-1의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안방의 이점을 살려 경기를 펼친다면, 리그 순위와 함께 상대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OK저축은행이 우세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한편 여자부 현대건설-흥국생명(2경기)전에서는 홈팀인 현대건설 승리 예상(63.68%)이 흥국생명 승리 예상(36.32%)보다 우위를 차지했다. 세트스코어에서는 3-0 현대건설 승리 예상(26.1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세트 점수차의 경우 4점차(19.99%)가 최다를 기록했다.

이번 배구토트 스페셜 52회차 게임은 1경기 시작 10분 전인 13일(수) 오후 6시 50분에 발매가 마감되며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토트 홈페이지(www.sportstoto.co.kr) 및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타맨(www.betma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절대로 하지 마이소”

케이토토·국민체육진흥공단 합동
부산서 도박중독 예방캠페인 실시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트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함께 4일 부산역 광장에서 도박중독 예방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전개했다.

케이토토는 부산을 찾는 관광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소액으로 건전하게 투표권을 구매하겠다는 ‘건전문화 확산 캠페인 서명부’에 서명을 받았다.

캠페인에 동행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정문화팀은 건강한 스포츠레저문화를 위해 서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들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로 캠페인에 함께 했다.

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에서는 과몰입을 통한 중독을 사전에 방지하



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박문제선별검사(CPGI)’를 실시했다. 더불어 전문적인 상담으로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도박중독 리플렛과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10인의 대학생 마케팅 전사들 ‘스포츠토토 서포터즈’ 수료식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트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로마홀에서 2019년 제1기 ‘스포츠토토 서포터즈’의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1기 스포츠토트 서포터즈는 지난 5월에 스포츠 마케팅을 꿈꾸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됐으며, 약 6개월 동안 스포츠 마케팅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투표권 사업 건전성 홍보 및 스포츠 관련 콘텐츠 제작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그 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4개조가 투표권 사업과 관련된 리포트를 발표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으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을 발표하는 시상식을 끝으로 이번 1기 스포츠토트 서포터즈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박진우 서포터즈는 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으며, 우수상의 김선아 와 장려상의 강혜원에게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됐다.